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7 주차 (롬 2:13~2:20)
(2017년 2월 12일 - 2017년 2월 18일)
(제5권 7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7 년 2 월 12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주일)

오늘의 본문 (롬2:13)

¹³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οὐ γὰρ οἱ ἀκροῦνται νόμου δίκαιοι παρὰ [τῶ] θεῶ.)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ἀλλ' οἱ ποιηταὶ νόμου δικαιοθήσονται.)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얼핏 들으면 이 선언은 마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린다. 만약 이 말이 진리라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거두절미하고 이 구절 하나만 부각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뿐만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야고보서 내용을 뒷바침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이며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흠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행함을 강조했다. 물론 행함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실제로 중요한 것이다.

문제는 그 행함을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고 차별화하는 잣대로 삼는다는 점이다. 행함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신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행위를 판단하고 측정하는 것도 하나님 몫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게 보이는 행동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의 진의는 그렇게 자신 있다면 율법을 들은대로 온전히 행해 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일종의 역설 화법으로 ‘(율법을) 행해서 의로움을 스스로 입증해 보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은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절망감을 느껴야 정상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시도를 내려 놓고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된다. 구원의 과정은 바로 그런 자신 만만함이 산산히 부서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인간들이 쉽게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쉬울까? 하지만 인간들은 그리 쉽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일단은 먼저 자신의 행위로 의를 입증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돼 있다. 처음 얼마간은 그같은 노력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보일 것이다. 물론 인간들 눈에 그리 보인다는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의는 전혀 의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로마서3장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성취해 낼 수 없으며 결국에는 그 율법이 인간들에게 좌절만 안겨 줄 뿐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19-20).

바울의 이 선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 내어만 의롭게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일견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 인간의 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개인적인 욕망이 들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그런 욕망을 완전히 없애기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내면의 은밀한 욕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순수한 의로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고 하자. 물론 그 사람은 매우 열정적이고 아무런 사심 없이 그런 선한 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 타인들에게 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선한 사람으로 추켜 세운다. 그런데 이런 그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그가 이런 선한 일을 한 의도를 의심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아마도 뭔가 다른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의 선행을 폄하하기 시작한다. 이럴 때 선행을 한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아마도 속으로는 불편하고 섭섭해 하겠지만 겉으로는 자신의 선한 의도를 몰라 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측은히 여기며 너그럽게 대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자기만 떳떳하다면 괜찮다며 애써 참는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칭찬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유감스럽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다고 추앙하는 이 사람, 근거 없는 음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요 심판의 대상이다. 왜 줄 아는가? 그는 이미 스스로를 그들과 비교하여 의롭고 선한 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할 뿐이라고 말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다고 판단하는 게 문제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몰랐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의 경중을 따지기 위해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거울일 뿐이다. 물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그 율법을 행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엄청난 수준의 선을 요구하는 율법에 굴복하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다.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을 넘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의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이를 고백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뤄놓은 가치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자기 실존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거지만 실제로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이다. 오직 그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 일으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율법이란?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2:14)

¹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행할 때에는) 언제나 (ὅταν γὰρ ἔθνη τὰ μὴ νόμον)
본성으로 지닌 율법을 행할 때에는 ἔχοντα φύσει τὰ τοῦ νόμου ποιῶσιν,
[비록] 율법이 없는 자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이 된다 (οὗτοι νόμον μὴ ἔχοντες ἑαυτοῖς εἰσιν νόμος.)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판정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조차 사실은 탐심이요 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악은 피하려 한다. 누군들 악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 골라서 하겠는가?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조차 많은 경우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과 탐심을 이기지 못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선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인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해진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은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순간 인간 내면으로 들어 온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악성 바이러스가 인간의 마음에 깔려 버린 셈이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도록 교묘하게 조종하고 인간은 그에 따라 행동하게 돼 버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선악 판단의 기준인 율법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보며 혀를 꼴꼴 찬다.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며 그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유독 우상을 좋아하거나 성정이 삐딱해서 그랬던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본보기로 선택된 민족이다. 따라서 그들의 실패는 인류 전체의 실패를 의미한다. 사실 어떤 민족이 선택되었든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들의 의와 거룩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떤가?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해서 안심할 일인가? 율법이 성문화된 법인데 반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문화되지 않은 또 다른 율법이 이미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율법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때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에덴을 창설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셨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 명령을 흔히 원시 율법이라 한다. 물론 잘 알다시피 아담은 그 열매에 손을 대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담의 행동을 탓하며 그로 인해 최초로 죄가 들어 왔고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죄는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그 책임이 있을 뿐이지 죄가 후대로까지 이어져 내려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아담이 저지른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억울하게 그 책임을 함께 뒤집어 쓴 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연좌제를 적용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일찌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다.

‘²⁹ 그 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³⁰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렘 31:29-30).

죄는 당사자의 문제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걸까? 우리의 조상 아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모든 인간들이 예외없이 죄인이 된 걸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들어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지닌 율법을 행할 때에는 언제나 비록 율법이 없는 자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이 된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아담이 지은 죄악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선악 기준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율법은 인간 마음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고약한 게 돼 버렸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등 다를 바 없었다. 다만 그들은 마음에 있는 그 율법을 성문화된 양식으로 다시 한번 더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그런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며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그를 찾아 온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누구나 뭔가를 행할 때면 본능적으로 마음 속에 있는 율법(양심)에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본다. 물론 늘 양심이 시키는 대로 옳은 일만 행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인간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보다는 비록 옳지 않을지라도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것이 인간들의 참모습이요 한계다.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도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나무를 보며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이 얻을 유익을 더 크게 생각했고 마침내는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지금 인간들의 불의한 행위를 탓하거나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동력이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선악 기준 때문임을 밝히고자 한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각자의 기준으로 차별화한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며, 심지어는 피부 색깔이나 출신 국가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선악 판단 기준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가진 선악 판단 기준으로 각자의 행동을 돌아보고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예외없이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누구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바울의 편지에는 율법으로 쉽게 회귀하여 그것에 얽매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난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선악 판단 기준에 묶여 그걸로 자신은 물론이고 남까지 정죄하지 말라고 한다.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고귀한 선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네이데시스(συνείδησις)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2:15-16)

- 15 누구든지 율법의 일을 나타낸다 (οἵτινες ἐνδείκνυνται τὸ ἔργον τοῦ νόμου)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γραπτὸν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αὐτῶν),
그들의 판단 기준이 증거할 때 (συμμαρτυρούσης αὐτῶν τῆς συνειδήσεως)
서로 간의 변론함으로 (καὶ μεταξὺ ἀλλήλων τῶν λογισμῶν)
고소함으로 또는 변호함으로 (κατηγορούντων ἢ καὶ ἀπολογουμένων),
- 16 그날에 (ἐν ἡμέρᾳ)
하나님이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을 심판하시는 때 (ὅτε κρίνει ὁ θεὸς τὰ κρυπτὰ τῶν ἀνθρώπων)
나의 복음에 따라 (κατὰ τὸ εὐαγγέλιόν μο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διὰ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양심(良心)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어진 마음’이다. ‘어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는 뜻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 양심, 즉 어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마음의 본 바탕은 원래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는데 살아가면서 점차 그 마음이 퇴색되고 변질되었다고 본다. 흔히들 ‘양심도 없냐?’ 또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다. 한글 성경은 로마서 2장 1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2:15).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대신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기준”이다. 따라서 양심이란 한 마디로 선악 판단 기준을 뜻한다.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인 양심은 그자체로 선한 것일까 아니면 악한 것일까? 사실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기준이 선하고 옳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올바른 기준인 양심에 어긋나면 악이고 불의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닌 양심은 우리를 도덕적 삶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된다. 사도 바울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수네이데시스(συνείδησις)가 있어 그것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그것으로 행위의 준거를 삼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변론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이 인간의 행위를 사전에 정하고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또한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단(四端)이라는 말이 있다. 사단이란 맹자가 주창한 것으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선한 마음을 일컫는다. 맹자는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러한 네 가지 도덕적 기준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자가 말하는 사단은 다음과 같다.

측은지심(惻隱之心):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진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의로운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예의바른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맹자는 사단(四端)을 인간 본성의 근간이요 근원적인 ‘이치’(理)로 보았다. 즉, 인간 본성에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선한 성질이 바로 사단인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로고스(logos)라고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1절에 말씀으로 번역된 그 로고스가 바로 ‘이치’에 해당한다. 한글 성경은 이를 진리라고 번역했다. 진리(眞理)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참된 이치’다. 동양 철학, 특히 맹자의 사단(四端)설에 의하면 인간 본성에는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누구나 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인간은 원래 내면 안에 진리 즉, 참된 이치를 실천할 수 있는 네 개의 도덕적 본성이 이미 내재해 있는 셈이고 따라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언뜻 보면 바울도 맹자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 같은 맹자의 주장에 매료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맹자의 사단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성문화된 율법으로, 이방인들은 내면화된 율법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는데 사실상 둘 모두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인간들 각자가 선악 판단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노력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각자 가진 선악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적 판단도 허락한 적이 없다. 선악에 대한 판단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따라서 인간들에게 선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라든지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 하면서 자신은 물론 남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주장을 조금 더 들여보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고전 10:29).

인간들이 자신이 가진 ‘수네이테시스’로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 자유가 남의 ‘수네이테시스’로 말미암아 어떻게 판단을 받는단 말인가?”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수네이테시스로 타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다. 그러니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놀이를 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요 사탄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생각하는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양심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당신은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인간의 판단 기준을 믿을 수 있을까?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2:15-16)

- 15 누구든지 율법의 일을 나타낸다 (οἵτινες ἐνδείκνυνται τὸ ἔργον τοῦ νόμου)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γραπτὸν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αὐτῶν),
그들의 판단 기준이 증거할 때 (συμμαρτυρούσης αὐτῶν τῆς συνειδήσεως)
서로 간의 변론함으로 (καὶ μεταξύ ἀλλήλων τῶν λογισμῶν)
고소함으로 또는 변호함으로 (κατηγορούντων ἢ καὶ ἀπολογουμένων),
- 16 그날에 (ἐν ἡμέρᾳ)
하나님이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을 심판하시는 때 (ὅτε κρίνει ὁ θεὸς τὰ κρυπτὰ τῶν ἀνθρώπων)
나의 복음에 따라 (κατὰ τὸ εὐαγγέλιόν μο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διὰ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고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 내면에 새겨진 판단 기준인 '수나이데시스'(우리는 이를 양심으로 번역한다)로 자신과 남들을 판단한다.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적 갈등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 기준들이 내면에서 서로 송사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세월호 침몰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과 실종자들의 아픔에 동참했다. 어떤 이들은 진도까지 먼 거리를 그들과 함께 도보 행진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 부모들과 함께 동조 단식을 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범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안해했다. 각자의 내면에 새겨진 양심이라는 율법이 이런 공황한 마음을 주었고, 그것이 여러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부채 의식을 가지는 것은 양심을 가진 정상적인 인간들이 당연히 갖게 되는 태도다. 하지만 이것이 늘 이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각기 양심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저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양심으로 내세운다. 어떤 이들은 서슴없이 나서서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가 넘쳐 흘러 결국에는 폭력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뿐인가?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유가족들이 단식하며 농성하는 자리에서 집단으로 피자 파티를 벌일 수 있을 정도의 광기까지 부린다. 인간들이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것을 자비와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이 집단적 결기의 양상으로 치달으면 어느 틈엔가는 사랑과 자비보다는 옳고 그름을 먼저 내세우게 된다. 물론 그 모든 판단 기준은 각자 자신들이 가진 기준에 근거한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다.

인간들의 내면에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다. 사람마다 처한 배경에 따라 다르고, 생각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선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존재한다면 이토록 사회적 갈등이 많고 깊지는 않을 것이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준거들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각자 자기가 가진 기준만 옳다고 고집한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다.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의로움을 평가하고 그들의 신실함을 판단한다. 그 뿐인가? 타인의 믿음조차 평

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가진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분들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해 보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물론 다소 적절치 않거나 또 신학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신 7:1-2).

도대체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들은 대대손손 그곳에서 살았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다. 게다가 그 땅 이름도 그들의 이름을 딴 가나안이다.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는 뜻이다. 그런 그곳에 200 만명이 넘는 타민족이 사전 허락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데 손 놓고 앉아서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 술 더 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하고 하셨다. 다시 말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는 말이다. 사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같은 성경 기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였겠는가? 인간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명령의 정당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곳마다 무자비한 학살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를 인정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그에 대한 답도 결국 인간들의 몫이다. 어떤 이들은 공황을 베풀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정의를 앞세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셨지만 성전에서는 동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죄판을 뒤집어 엮을 정도로 단호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생계가 달린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대신 단호하게 채찍을 드셨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사람들이 쫓겨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논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인간의 눈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의 눈에 선하고 좋게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사단의 눈속임일 수도 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악하고 불경건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 올린 율법적 의가 도리어 그들의 눈을 가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시도 때도 없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양심이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양심대로 행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2:15-16)

- ¹⁵ 누구든지 율법의 일을 나타낸다 (οἵτινες ἐνδείκνυνται τὸ ἔργον τοῦ νόμου)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γραπτὸν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αὐτῶν),
그들의 판단 기준이 증거할 때 (συμμαρτυρούσης αὐτῶν τῆς συνειδήσεως)
서로 간의 변론함으로 (καὶ μεταξὺ ἀλλήλων τῶν λογισμῶν)
고소함으로 또는 변호함으로 (κατηγορούντων ἢ καὶ ἀπολογουμένων),
- ¹⁶ 그날에 (ἐν ἡμέρᾳ)
하나님이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을 심판하시는 때 (ὅτε κρίνει ὁ θεὸς τὰ κρυπτὰ τῶν ἀνθρώπων)
나의 복음에 따라 (κατὰ τὸ εὐαγγέλιόν μο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διὰ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한 임금님이 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풀기로 하고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했다. 임금은 먼저 종들을 시켜 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그 청을 거절했다. 어떤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의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가 버렸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떠나버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심부름꾼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단단히 화가 났다. 그는 군대를 보내 자신의 심부름꾼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마을을 불살라 버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인 잔치를 좌할 수는 없었다. 임금님은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 대신에 길거리에 나가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갔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 잔치에 초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 잔치에 참가할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은 없다. 다만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바로 그 혼인 잔치에 임금이 원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보였다. 임금이 준 예복을 거절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손발이 묶인 채 밖으로 쫓겨났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2 장 1 절~ 14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복을 도덕적 행실로 해석한다.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 아무나 잔치에 초대받은 건데 그들에게 무슨 도덕적 행실을 요구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구절에서도 역시 인간적 판단 기준을 들이댄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헐박 아닌 헐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옷만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임금님은 사람들의 배경이나 출신은 전혀 묻지 않는다. 그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가문 출신인지, 재산은 어느 정도며 사회적 지위는 어떤지 전혀 따지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혼인 잔치에 참석 했는지가 관건이다.

임금이 말한 합당한 옷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임금님이 베푼 잔치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초대받아 온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적 시각으로 선한 자건 악한 자건 상관없다. 그들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전부다. 평생을 병상에 누워 고생하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기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도 동일하게 잔치에 초대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런 것이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님이 지정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옷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교했다. 갈라디아서 3 장 26 절부터 29 절을 읽어보자.

“²⁶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²⁷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²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²⁹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6-29).

사도 바울의 설명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된 자들이다. 당연히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의 행실이 아닌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그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오늘의 본문 16 절을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립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을 심판하실 날이 올텐데 그 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지신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이에 대한 답도 단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신분과 인종과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 잔치에 참석했다. 하지만 만찬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있다. 바로 만찬장에 입고 온 예복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예복으로 입고 나온다. 세상에 끼친 선한 영향력, 세상 사람들의 높은 평판, 자랑스러운 명예...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하나님은 인간 내면에 있는 선악 판단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의로움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어야 할까요?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2:17-20)

- 17 *Ei δὲ σὺ Ἰουδαῖος ἐπινομάζῃ* (만일 당신이 [스스로] 유대인이라 불리워진다면)
καὶ ἐπινομάζῃ νόμῳ (당신들은 율법에 의지하고)
καὶ καυχῶσαι ἐν θεῷ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 18 *καὶ γινώσκεις τὸ θέλημα* (그의 뜻을 깨달으며)
καὶ δοκιμάζεις τὰ διαφέροντα κατηχούμενος ἐκ τοῦ νόμου, (율법의 가르치고 있는 것의 다름을 입증하며)
- 19 *πέποιθάς τε σεαυτὸν ὀδηγόν* (당신 스스로를 인도자라고 설득하고 있다)
εἶναι τυφλῶν, φῶς τῶν ἐν σκότει, ([즉], 어둠에 있는 눈먼 자들의 빛이라고)
- 20 *παιδευτὴν ἀρρόνων,* (어리석은 사람들의 훈계자라고)
διδάσκαλον νηπίων,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ἔχοντα τὴν μόρφωσιν τῆς γνώσεως καὶ τῆς ἀληθείας ἐν τῷ νόμῳ· (율법 안에서 깨달음과 진리의 모습을 가진)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질책은 가혹할 정도다.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이 상해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남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고 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몇 가지 표현으로 빗대고 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자라면 필시 그들은 타인들과 구별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 했다. 사실 유대인이라 말 자체가 지구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 반대편에 세운다. 유대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순간 그들 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 된다. 원래 이방인이라 그 지방 토박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온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잠시 방문한 나그네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들 중에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들이라 여겼다. 그들에게는 철학에 능한 헬라인도 이방인이고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이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는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 오직 유대인들만 선택된 민족이며 나머지 이방인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율법에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말은 율법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설명한다는 말이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기보다는 율법이 정한 내용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왔다는 말이다. 본래 율법이 가진 기능이 그러하듯 율법은 그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만들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인 이방인과 접촉하기 꺼려했다. 게다가 안식일과 절기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다졌다.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 먹었고, 이방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행동을 자주 하셨기 때문이다. 분명 그들 눈엔 예수님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자로 보였을 것이다.

둘째,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의 창조주이시기도 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온 유대교 안에 가두어 놓고 단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격하시켰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기들만이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끼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했다.

넷째,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가르침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도덕이나 법과 얼마나 다른지 입증하려 했다.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의 가르침이 세상의 것과 얼마나 차별화 된 것인지 보여주려 애를 썼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율법과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경스럽고 불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도 바울이 비판한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특히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대상이다. 물론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았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얼마나 차별화된 존재인지를 실제 삶의 모습으로 보여 주었다. 외견상 그들의 삶은 경건하고 의롭게 보였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린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름을 강조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질타할 뿐만 아니라 그 다름의 원천이 선민 사상과 율법에 있음도 함께 질타하고 있다.

바울의 이러한 질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편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차별이 생겨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쳐다본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위가 영향을 미친다.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중책을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크리스천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타인들을 평가하는 말이 오히려 더 섬뜩할 때도 많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처럼 선민 의식과 도덕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지도 모른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타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흉기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차별보다는 포용을, 자랑보다는 겸손을 지향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자격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타인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의 착각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2:17-20)

- ¹⁷ Εἰ δὲ σὺ Ἰουδαῖος ἐπινομάζῃ (만일 당신이 [스스로] 유대인이라 불려진다면)
καὶ ἐπινομάζῃ νόμῳ (당신들은 율법에 의지하고)
καὶ καυχῶσαι ἐν θεῷ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 ¹⁸ καὶ γινώσκεις τὸ θέλημα (그의 뜻을 깨달으며)
καὶ δοκιμάζεις τὰ διαφέροντα κατηχούμενος ἐκ τοῦ νόμου, (율법의 가르치고 있는 것의 다름을 입증하며)
- ¹⁹ πέποιθᾶς τε σεαυτὸν ὀδηγόν (당신 스스로를 인도자라고 설득하고 있다)
εἶναι τυφλῶν, φῶς τῶν ἐν σκότει, ([즉], 어둠에 있는 눈먼 자들의 빛이라고)
- ²⁰ παιδευτὴν ἀρρόνων, (어리석은 사람들의 훈계자라고)
διδάσκαλον νηπίων,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ἔχοντα τὴν μόρφωσιν τῆς γνώσεως καὶ τῆς ἀληθείας ἐν τῷ νόμῳ· (율법 안에서 깨달음과 진리의 모습을 가진)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다. 사실 인간에게 착각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매우 삭막하고 인생이 무미건조해질 것이다. 때론 착각이 인간에게 행복하고 유쾌한 기분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느 심리학 교수는 착각도 행복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잘생겼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며 행복해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사회 미담이 될만한 일이 뉴스에 났는데 마침 그 일을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더 우쭐해진다. 그리스도인라서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며 뿌듯해 하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유감스럽지만 그것도 착각이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그랬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모습도 갖추고 있다고 여겼다. 물론 착각이다. 율법을 완전히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이 함의하는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다. 지식과 지혜가 다르고 앎과 행함이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독점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만 진리를 깨닫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유대인을 통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착각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따끔하게 질타했다. 19 절과 20 절을 보자.

“당신들은 스스로를 인도자라고 설득하고 있다. 즉, 율법 안에서 깨달음과 진리의 모습을 가진 어둠에 있는 눈먼 자들의 빛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훈계자고,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실로 위대한 착각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고, 율법이 정한 절기를 잘 지키는 데다가, 율법이 정한 대로 음식을 가려 먹으며, 율법에 기록된 사회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기에 충분히 이방인들을 인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율법과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질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차별은 이같은 그들의 착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에서 나온 사람들로 보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여겼다. 게다가 율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취급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율법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런 이방인들의 삶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다. 그들은 율법에 무지했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성경(구약)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싶었다. 물론 그들의 의도는 나쁜 순수했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도 그때와 비슷하다. 교회는 어느새 신성한 곳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금기시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되고 담배도 절대로 피우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실제로 우리 주위엔 금연과 금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의 가장 큰 난제로 술을 꼽는다. 게다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로 금주와 금연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까? 참고로 현대 기독교 영성의 대가로 추앙받는 C.S. 루이스는 소문난 골초였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유대인처럼 만들려 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우리들도 어느새 그들을 닮아가고 있다. 얼마 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필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왜 교회에 나가면 술을 끊어야 하나요?” 당돌한 질문에 순간 당황하다가 솔직히 술 마시는 것과 믿음은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그래도 교회에 나가면 술을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래서 필자는 술과 교회가 왜 상관이 없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뭔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말하는 도덕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도덕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은 굳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이고, 또 교회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다. 특별히 교회가 도덕을 가르치는 곳도 아니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곳도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죄인들,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 친구가 되는 지름길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믿는 자로서 교회 내에서 어떤 도덕적 준거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런 준거들이 교회 생활에서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